

# 第13回「國際에 디슨誕生日記念祝典」參加記

## 〈特急 世界一周記・第2部〉

社團法人 大韓電氣協會

事務局長 太 仁 善

### 〈파리 (Paris)〉

「유럽까지 와서 파리를 안보고 간대서야 말이 되느냐」는 에디슨財團 專務理事 Cook氏의 意見을 結局 쫓은 格이 되고 말았지만 아무리 바쁜 旅程이기로서니 그럴 수는 없지않아 다음 目的地인 벨기에의 브뤼셀로 가는 途中에 파리에서 하룻밤을 滯留하기로 하였다.

ENEL의 Marciani氏가 UNIPEDA (國際發送配電業者聯盟: 유럽 19個國이 正會員으로 되어 있는 電氣事業에 關한 國際的 研究交換機關. 1925年 創立. 파리에 本部가 있음.)의 事務局長에게 電話로 附託해서 豫約해 두었다는 호텔을 찾아 들어서니 앓불사! 國民所得 100弗臺의 나라의 無名의 一個 市井人이 하룻밤의 잠을 請하기에는 너무나도 豪華스러운 호텔임이 첫눈에도 分明하나 때는 이미 늦었다.

華麗한 制服의 袍이의 鄭重한 案内를 받아 되도록 泰然스럽게 豫約된 房으로 올라 가니 아니나 다를까! 大理石의 威嚴과 샹젤리에의 絢爛과 더불어 드의 傲慢이 나의 食率 全員이 雨露를 避하고 生을 營爲하는 가난한 내 故國에서도 한결 초라한 나의 집의 몇個의 房을 合한 것보다도 더 넓은 空間에 가득차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파리에서도 高級 專門店街로 손꼽히는 거리에 位置한 이 디럭스級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街路라고 衆口가 一致하는 샹젤리에街 (Avenue des Champs-Élysées)와 數많은 파리의 廣場 中에서도 넓고 아름답고 또한 피리넬나는 歷史로 이름난 콩코르드廣場 (Place de la Concorde)에서 얼마 안되는 距離에 있으며 大統領 官邸인 엘

리제宮과는 咫尺之間에 있었다. 「料金 어느 程度의 호텔」이라고 딱 잘라서 附託하지 않은 失手の 德分으로八字에 없는 호강을 한번 해본 結果가 되었으나 가벼운 주머니 形便으로 보아서는 若干의 打擊이 아닐 수 없었다.

寢食에 必要한 最小限度의 時間을 제쳐놓으니 파리 求景에 나에게 주어진 時間은 不過 7, 8時間. 제 만에는 눈물점도룩 부지런히 걸어도 보고 택시며 地下鐵로 달려도 보고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結局 「走馬看山」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피식 웃는 데서 一幕의 끝. 「파리를 求景하였다」라는 表現은 애써 삼가하고 「파리의 땅을 밟아 본 일이 있다」는 程度로 일 버무려야 될 處地에 어떻게 多彩롭고 感激的인 形容詞의 主觀的인 觀光所感이 輕率하게 나올 수 있으리오마는 그러나 果然 파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魅力있는 都市가 아닐 수 없었다.

人生이란 아름다울 수도 있으며 人間이란 슬기로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이 역경다고 느끼기도 하는 나그베에게 속삭여 주는 파리. 억지춘향이가 아닌 참된 人生讚美의 노래가 뜻 사람들의 입에서 절로 울려나올 수 밖에 없는 파리.

灰色——파리의 灰色은 로마의 基調色이 赤褐色이었다는 事實을 想起시켜 주는 滋味있는 役割도 한다.

調和——自然과 人工 사이의, 그리고 人工 相互間의, 恍惚하리만치 洗練되고 얄미우리만치 安定된 調和는 亦是 卓越한 美意識의 所有者들의 年功드린 努力의 所産임에 틀림이 없었다.

人間—自由·平等·友愛의 三色旗가 謙遜하게 그러나 毅然하게 나부끼는 하늘 밑에서- 香氣높은 커피 한잔에 人生을 생각하는 빠리의 사람들은 정녕 人間의 尊嚴性을 앞장서 부르짖고 壓政에 抗拒하여 피흘리며 싸웠던 近代市民社會 建設의 先驅者들의 後孫임에 틀림이 없었다.

歷史—「1943年 某月 某日, 祖國의 自由를 지키기 爲하여 싸우던 某君이, 某歲의 젊은 나이로, 이 자리에서 獨逸軍에 依하여 銃殺되다.」……세이느江의 擁壁, 建物の 壁面 等に 심심치 않게 눈에 띄이는 永久耐用的 彫刻의 基碑는 自由를 爲로 爭取하여 온 자랑스러운 歷史의 한 페이지로서 길이길이 保存되겠지.

### <브뤼셀 (Bruxelles)>

4月 15日 午後 빠리를 떠나 브뤼셀로 가다. 로마에서 到着時에는 南쪽의 오르리(Orly)空港이었으나 이번에는 北쪽의 르부르제(Le Bourget)空港이다.



<파리 中心部: 凱旋門, 상젤리제街, 콩코르드廣場, 튜일러리庭園, 루우브르宮殿 等이 보인다>

1927年 5月 美國의 Charles Lindbergh가 單身으로 “Spirit of St. Louis”號를 타고 33½時間의 飛行 끝에 最初의 大西洋單獨橫斷에 成功하고 熱熱한 歡迎을 받으며 着陸한 곳이 바로 이 飛行場이다.

오르리空港이 世界에서도 손꼽히는 大대한 施設을 갖춘 大空港임에 對하여 르부르제는 그 規模가 훨씬 작아 威壓感이나 疎外感을 주지 않아서 좋다.

却說하고 빠리-브뤼셀 間은 不過 300Km의 距離. 담배 한대 피우고 葉齋 한장 쓰고 나니 벌써 着陸한다는 아나운스이다.

뜻하지 않은 トラブル이 發生한 것은 飛行場 出國 케이프에서였다. 벨기에 入國비자가 없으니 空港 밖으로 는 나가지 못한다는 분명스러운 말이 出札係員의 口에서 튀어 나온 것이다. (出發前에 알아본 바에 依하면 비자 없이도 72時間은 滯留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또한 時間의으로도 비자發給申請은 不可能하였다.)

“Chef de Gendarme”(憲兵隊長)이라는 標札이 붙은 房으로 나를 案内하는 係員의 態度는 如前히 脾胃가 뒤들릴 程度로 非友好的이다. 憲兵隊長이라는 사나이 亦是 그렇고 그런 타입이다. 일이 孟浪하게 되는구나 싶었다.

「나의 用務는 이러이러하고 滯留 豫定은 하루 뿐이다. 어떻게 方法이 없겠는가?」

「空港 構內에서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다.」

「通過旅客의 72時間 以內 滯留는 비자 없이 許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럴 理 없다.」

「設使 나의 理解가 잘 못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便法을 講究해 주는 것이 善意의 外國人 旅行者에 對한 妥當한 態度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法律에 依하여 비자 없이 入國은 안된다.」

「그러면 이 以上 附託하지 않겠다. 다만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Grand-Place을 보지 못하게 된 것과 良心들의 不親切을 唯一한 記憶

으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遺憾스러울 뿐이다。」

「……?!」

이리하여 結局 空港內의 Aerohotel에서 憂鬱한 그러나 오랫동안 閑暇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4月 16日, 1966年의 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의 準備를 主管한 데마레氏 (José Desmarets: Directeur du Departement de l'Information, L'Union des Exploitations Electriques en Belgique)의 事務所로 電話를 거니 多幸이 本人이 나온다. 이름을 대니카 Cook氏가 이탈리아에서 떠온 便紙를 어제 받고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고 한다. 어제부터의 일을 簡單히 說明하니 곧 飛行場으로 나오겠다는 對答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음目的인 美國의 비자에 關하여 確認해 보기로 한다. 初老의 女人으로 짐작되는 女人의 應待가 于先 상냥해서 좋다.

「10日 以內는 비자 없이 滯留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韓國人 旅行者인데 確認하기 爲하여 電話를 걸었다.」

「틀림 없이 그렇다. 但 美國 出國까지의 모든 航空便이 豫約되어 있어야만 된다.」

「!!」 (이것은 모르고 있었다!)

航空會社 카운타에 가서 “open”으로 되어 있는 티켓을 모두 메꾸고 나니 데마레氏가 到着한다. 어제의 憲兵隊長을 또 만나니 態度가 若干 누그러진 것 같다. 美國大使館과의 비자에 關한 通話件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러면 自己도 入國비자를 即時 發給해 주겠다고 한다. 데마레氏도 만나고 했으니 이제는 必要없다고 拒絕하였더니 그러지 말고 和解하자는 제스추어이다. 直席에서 入國비자 스탬프를 찍어 주고 末安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握手와 웃음으로 고맙다고는 하였으나 어제의 不快하였던 狀況을 생각하니 입맛은 그다지 개운치가 못하다.

데마레氏의 車로 브류셀市內로 들어간다. 面積 3萬 1千Km<sup>2</sup>, 人口 960萬의 小國이면서도 人口 1人當 鋼鐵生産量이나 輸出高 같은 重要한 指標에 있어 斷然 世界第一(註)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首都 브류셀은 차분하게 安定된 人口 100餘萬의 氣品있는 都市이다.

(註) 人口 1人當 鋼鐵生産量 (Kg·1965年)

벨기에 970      美國 627  
西 獨 624      英國 503

프랑스 400

人口 1人當 輸出高 (US \$·1965年)

벨기에 714      和蘭 520

캐나다 414      西獨 303

英國 251      프랑스 205

美國 139      이탈리아 139

그러나 安定과 繁榮을 享有하는 先進工業國 벨기에에도 亦是 적지않은 苦惱거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게르만系의 플레밍 (Fleming)인과 라틴系의 왈루운 (Waloon)인과의 複合民族國家라는 點에서 發生하고 있다. 西部 유럽을 文化的, 民族的, 言語的으로 게르만 (German) 및 라틴 (Latin)의 二大圈으로 分割하는 線이 大體로 이 나라의 中央을 通過하고 있으며 首都 브류셀은 바로 이 分界線上에 位置하고 있다. 北部의 플레밍인은 和蘭語 및 그 方言을, 南部의 왈루운인은 佛語 및 그 方言을 常用語로 쓰고 있으며 보다 뿌리깊은 民族의 分派意識이 때로 國民意識을 앞질러 發動할 때 尋常치않은 政治的 또는 社會的 不安과 紛爭이 發生하는 수가 往往 있다고 한다.

常用言語에 依하여 이 나라의 民族構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千名·1967年)

和 語                    5,348  
佛 語                    3,118  
獨 語                    61  
브류셀 (和佛共用)    1,079  
計                        9,606

義務教育 9個年 동안에 和語圈에서는 佛語를, 佛語圈에서는 和語를, 各各 第二言語로서 배우게 되므로 實質的으로 全國民이 두가지 말을 다 理解한다고도 볼수 있으나 自己自身과 같이 實地로 2個語를 自由롭게 驅使할 수 있는 國民의 比率은 20~25% 程度가 아닐까 하는 데마레氏의 말이였다.

空港의 憲兵隊長이 나의 비자件을 上司에게 報告하는데 처음에는 佛語를 쓰다가 「狀況을 客觀的으로 報告하기 바란다」고 教科書式 佛語로 한마디 하였더니 앗차하는 表情으로 即時 和語로 轉換해 버리던 일이. 이제는 滋味있는 追憶거리로 생각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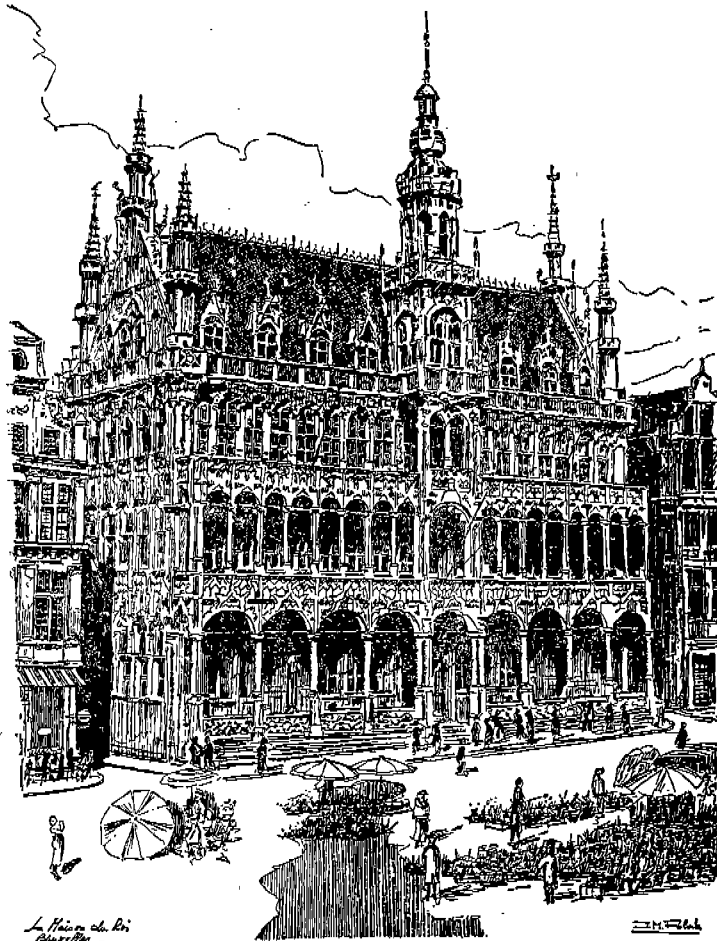
데마레氏의 事務所에 暫時 둘러 에디슨祝典에 關한 資料를 若干 (얼마 없어 失望이였다) 얻은 다음 브류셀의 心臟이라고 불리우는 그랑·플라스 (Grand-Place) 一帶를 散策, 꼬딕식과 르넛상스식의

古色蒼然한 建物들이 規模와 精巧와 金箔과——그리고 勿論 不可缺의 要素인 圓熟된 調和를 자랑하는 長四方形의 이 廣場에는 噴水나 彫刻 같은 것이 없는데 代身에 季節의 꽃이 盛市를 이루고 있었다.

數世紀前의 屋內 構造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레스트란에서 名物이라는 生鮮料理와 濃厚한 커피로 데마레氏와 談笑의 時間을 보내고 氏의 錢送을 받으며 飛行場으로 나가는 길목에는 EEC며 NATO를 爲始하여 굵직한 國際機構의 本部가 많이 자리잡고 있는 「유럽의 首都」답게 여러나라의 國旗가 이른 봄의 찬바람에 鮮明한 色彩를 휘날리고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띄었다.

[備考]

國名: België(和) Belgique(佛) Belgium(英)  
 首都: Brussel(和) Bruxelles(佛) Brussels(英)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왕의 집」(La Maison du Roi)>

## <美國으로>

4月 16日 저녁 브뤼셀을 떠나 런던 經由 美國으로 向한다.

偶然한 일이었으나 伊→佛 間은 Air France(佛) 機, 佛→白 間은 SABENA(白) 機, 白→英 間은 BEA(英) 機를 타게 되었다. 國際航空路線에 就航하는 여러나라의 航空會社들 사이의 熾烈한 乘客爭奪戰, 德澤으로 せ어비스面에서는 優劣을 가리기 힘들 程度로 모두 비슷하게 拮据하였으나 그러면서도 그나라의 國民性 같은 것이 含蓄의 飛行機라는 小世界에서까지도 窺할 나타나기도 하여 人間集團의 血緣의 뿌리깊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런던의 히이스로우(Heathrow) 空港 待合室에서 뉴욕行 ALITALIA 機로 갈아타기 爲하여 두 時間以上을 기다리게 되었다.

겨의 紳 사이 없이 다음 出發便의 機名과 目的地와 塔乘口番號가 아나운스되고 나가는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물결이 끊일 사이 없이 구비치고——이리하여 世界 屈指의 大空港의 脈搏은 不斷한 鼓動을 繼續하건만 秩序와 靜肅은 神聖不可侵이라는 듯 조용하기만한 가운데 印度人으로 보이는 有色人아 주머니들이 몇사람 고달픈 生活의 所産임이 分明한 諦念과 沈默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끌고 소리없이 빗자루를 놀리고 갯털이를 비우고는 소리없이 사라져 가니 여기가 바로 往年에 世界를 주름잡던 大英帝國의 서울임은 정녕 틀림이 없겠다.

뉴욕의 케네디(John F. Kennedy) 空港에는 Detroit Edison 會社의 뉴욕事務所 所長 Virgil K. Rowland 氏가 子正이라는 늦은 時間에도 不拘하고 마중나와 있었으며 바로 接續이 되는 더트로이트行 NWA 機에 塔乘할 때까지 入國手續 其他를 親切하게 보살펴 주었다.

(次號에 繼續)

第13回「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叢報 (前號 參照)



〈에디슨財團 理事長 Cislser氏의 式辭〉



〈表彰狀 授與〉



〈式場에서의 優秀學生・同伴教師〉